

장성군 황룡강 봄 축제 ‘뮤직 페스티벌’ 흥 돋군다

10~11일 국내 정상급 가수 무대 올라
고향사랑기부 참여시 1인 2장 티켓도
지역 봄·가을 축제 차별화 부여 목표
무대 주변 가족단위 나들이 편의 제공

장성군이 10~11일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제 24회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를 연다.

봄·가을 2회 편성된 축제에 차별성을 부여하고자 축제 첫날인 10일에는 ‘뮤직페스티벌’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예술성과 흥행성을 강화한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에서는 1년에 2회, 봄과 가을에 축제가 열린다. 5월에는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10월에는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관객맞이에 나선다.

강변 가득 피어난 10리 꽃길을 거니는 콘셉트가 비슷하다 보니 봄축제와 가을축제를 차별화할 소재가 필요했다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군은 수 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끝에 봄축제 때 ‘뮤직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으나 음악을 즐기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축제 주무대로 쓰이는 옛 공설운동장 부지는 행사 기간에만 간이 무대가 설치될 뿐 평시에는 잡풀만 자라는 공터에 가까웠다.

장성군은 이곳에 언제든 음악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부터 강변 쪽 음악분수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계단식 잔디광장을 조성했다.

잔디광장에는 약간의 경사를 뒤 어디에 앉아도 무대 쪽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했다. 야외무대 주변에는 고르게 잔디와 나무를 심어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간을 갖춘 뒤에는 뮤지션 섭외에 공을 들였다.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콘셉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술성과 흥행성이 담보된 가수를 장성으로 초대하는 데 주력했다. 그렇게 ‘지역축제는 트로트가 대세’라는 공식을 깨고 지난해 봄 지역 최초로 ‘10cm’와 ‘소란’의 무대를 선사했다.

올해 뮤직 페스티벌도 지난해의 명성을 이어가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정상급 락



지난해 장성군이 예술성과 흥행성을 강화해 가수 소란 등을 초청한 뮤직 페스티벌을 열었다.

장성군 제공

밴드 ‘국카스텐’, 싱어송라이터 ‘카더가든’을 비롯해 유다빈밴드, 범키, 연정, 리제, 이종민 7명의 뮤지션이 봄밤을 음악으로 ‘적실’ 예정이다.

‘국카스텐’은 보컬 하현우, 기타 전규호, 드럼 이정길, 베이스 김기범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다. 쉬운 가사와 듣기 좋은 음악을 선보이는 모던 락 밴드들 사이에서 ‘싸이키델릭’ 풍의 몽환적인 음악과 난해한 가사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멤버 개개인의 연주 능력도 출중하지만 리더를 맡고 있는 보컬 하현우의 날카롭고 강렬한 고음은 ‘국카스텐’을 상징하는 ‘시그니처’다. 밴드 이름 ‘국카스텐’은 중국식 만화경을 뜻하는 독일어다. 뛰어난 작곡 능력과 노래 실력으로 정평 난 ‘카더가든’의 무대도 관심을 모은다. 특유의 미성과 허스키한 음색이 어우러진 그의 목소리는 공연장에서 들었을 때 더욱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활동명 ‘카더가든’은 그의 본명(차정원)을 영어로 풀어쓴 단어다. 봄날의 산뜻한 감성을 전하는 유다빈밴드, 알앤비(R&B) 보컬리스트 범키 등 ‘귀 호강’을 시켜 줄 뮤지션들도 줄지어 황룡강을 찾는다.

락밴드 등의 공연 외에도 구성된 트로트가 듣고 싶다면

하루 앞선 9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전자제를 추천한다.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이찬원, 윤수현, 이수호 등의 가수들이 축제의 흥을 한껏 돋워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꽃길축제장 일원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스탬프를 찍어 엽서를 완성하는 ‘추억 한 칸, 스탬프 한 장’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본부에서 엽서를 받은 뒤 축제장 네 곳에 마련된 스탬프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도장을 찍으면 장성군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 그림엽서가 완성된다. 스탬프는 운영본부와 체험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힐링허브정원에서 받을 수 있다.

황룡정원에 마련되는 ‘예술직업 체험’도 관심을 끈다.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도슨트’, ‘성장이와 장성이’를 만드는 작가, 꽃으로 세상을 꾸미는 ‘플로리스트’, 나만의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가 되어볼 수 있다. 스탬프를 받으려 강 건너 힐링허브정원에 간다면 목공 체험도 해볼 만하다.

아이들에게 ‘체험’이 있다면 어른들에게는 ‘공연’이 기다린다. 5월 중에 장성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하고 영수증을

축제장 접수처에 제출하면 ‘상생감사석’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상생감사석’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황룡정원 주무대 앞자리에 마련된 특별석이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선착순 200매가 마련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도 상생감사석에 앉을 수 있다. 장성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성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인 2매의 상생감사석 티켓을 지급한다. 총 100석이 준비돼 있으며 지난해 1월 이후 기부자에게 50석, 현장 기부자에게 50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에서 접수한다.

장성에서 하루 머물며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은 ‘숙박할인 이벤트’를 챙겨보는 것도 좋다. 전남 외 거주자 등 지원 조건이 맞으면 숙박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남관광플랫폼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꽃길축제 기간 열리는 장성 뮤직 페스티벌은 황량하던 공터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실력과 뮤지션을 초청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탄생한 콘텐츠다”며 “정상급 뮤직 페스티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방문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